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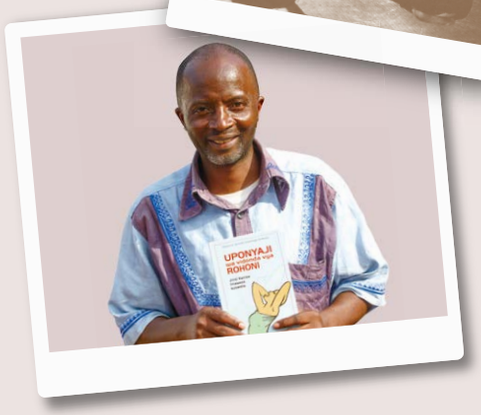
2023년 봄 제69권 1호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전해주세요!

(재)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세상을 밝히는 말씀의 빛

한글 성경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전통 사회의 구습을
타파·개혁하는 데 앞장서며
어두운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두움에 사로 잡혀 사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해외 성경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성서공회들을 돕는 일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역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한국교회와 후원 회원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 **www.bskorea.or.kr**

성서한국

2023 봄 제69권 1호

02 포토에세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04 커버스토리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08 나의 삶을 바꾼 말씀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10 2023 해외 성서 기증 현황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72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12 튀르키예를 위한 기도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4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새한글성경』은 원문의 뉘앙스를 잘 드러냅니다

16 현장 이야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다

18 성경을 받은 사람들
어둠 가운데 말씀의 빛을!

21 후원 이야기

24 대한성서공회 소식
제 138회 정기이사회 개최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반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소 : **성서사업센터** (1708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2로 197
재단사무국 (06734)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부담)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23년 3월 31일
· 인쇄인·인쇄처·편집 : (주)타라티피에스
*https://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본지는 도서잡지 윤리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라오스 몽족 문자교실 수업 모습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라오스는 문맹률이 높아 성인 남성의 20%, 여성의 40%는
글을 읽고 쓰지 못합니다.
특히 시골 지역의 소수 민족들은 더욱 문맹률이 높고,
경제적 여건으로 학교를 중퇴한 어린이들은
글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소수 민족들이 사는 지역에서 운영되는 문자교실은
참여자들이 글을 배워서 귀로만 들었던 말씀을
직접 읽고, 쓸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성서공회는 문자교실에 성경과 교재를 지원하여
소수 민족들이 성경을 통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2년 만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출석하던 교회를 통해
성서공회 문자교실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배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저에게 읽고 쓰는 법을 배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 바오(Bao)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아프리카의 많은 청소년들은 대물림 되는 가난으로 고통 받고, 일부는 가정에서 버림받아 길에서 생활하기도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마약이나 폭력 조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청소년들은 죄에서 돌이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메마른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며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베냉에서 에이즈가 창궐한 알라다(Allada) 지역은 부모를 잃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당장의 먹을 것과 지낼 곳을 제공하는 NGO단체들이 있지만 곧 성인이 될 청소년들은 미래를 생각했을 때 막막하기만 합니다. 베냉성서공회는 기독교 고아원이나 보호 단체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며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정에서 버림받거나 길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 공허한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의 사랑이 메마른 청소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줍니다.

"저는 제가 고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절망감을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은 후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저의 삶을 드렸습니다."

- 후앙 다니엘(Houangn Danielle)/베냉

간증 영상 보기

▲ 베냉 고아원에서 성경을 받은 청소년들

▲ 성경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하는 모습

성경으로 믿음의 세대를 세웁니다

가나성서공회는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려 성인이 되어서도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사들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도덕 교육만으로는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며, 학교 채플을 통해 성경을 읽은 청소년들의 수업 태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음을 강조합니다. 그렇기에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서공회에 지속적으로 성경을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가나의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받기 원하는 사람을 물어보면 모든 학생들이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성경을 받은 청소년들은 성경을 분실하지 않도록 성경 표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합니다. 가나는 최근 무슬림 인구가 증가하여 이슬람교 비율이 18%를 넘어섰습니다. 미션스쿨에는 무슬림 가정의 학생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받기 희망하면 학교에서 성경을 선물하고, 이를 통해 무슬림 학생들도 성경으로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싸우신다고 말씀하신 출애굽기 14장 14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성경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 조엘 이사야 사모아(Joel Isaiah Samoa)/가나

믿음을 세우게 하는 힘

부르키나파소의 불안한 치안 속에서 청소년 기숙학교 안에 교회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위에 다른 학교들도 있지만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미션스쿨의 교육 수준이 높고 교사들의 헌신도가 월등해 무슬림 가정에서도 미션스쿨에 자녀를 보낼 정도입니다.

기숙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서 성경을 나누어 준다는 소식이 들리자 주일이 아님에도 순식간에 교회가 가득 찼습니다. 교회에서도 성경이 귀하기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갖는 것은 꿈만 같은 일입니다.

개신교인이 6.5%밖에 되지 않는 부르키나파소에서 기독교인들은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의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사랑 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저만의 생각에 갇혀 홀로 지냈고,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 바마 엠마누엘라(Bama Emmanuela)/부르키나파소

간증 영상 보기

▲ 성경을 받기 위해 교회에 가득 모인 학생들

"저에게는 가족의 어려움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제 삶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해주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제 삶의 일부입니다."

- 클라라 다니엘라(Clara Daniella)/부르키나파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기를!

"저는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 총무 드라만 양키네 목사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아프리카 성서공회들을 향해 보여주신 한국에 계신 후원자님들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부르키나파소는 현재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테러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접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사람들은 성경을 필요로 하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 여성 그리고 군인들에게도 성경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지원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 부르키나파소성서공회 총무 드라만 양키네 목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아프리카의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성경을 통해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세요.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10명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컨테이너에 성경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 080-374-3061(수신자 부담)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말씀

세르비아는 유럽의 발칸반도 중앙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유럽의 기독교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가운데, 세르비아 기독교인들의 교회 출석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성서공회는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달에 세 번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세르비아성서공회에서 진행되는 성경공부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르비아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합니다.

▲ 성경공부에 참여한 티자나 레보예비치(Tijana Lepojevic)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이모는 저를 돌보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마약과 술을 하며 살았습니다. 거리에서 지내는 상황 속에서 성서공회의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제 삶을 바꾸었고, 저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슬프고 고난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

-티자나 레보예비치(Tijana Lepojevic)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랜 내전으로 80만 명 이상의 세르비아 어린이들은 빈곤선 이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르비아의 미래가 되는 다음 세대에게 성서공회는 성경을 제공하고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 성경이 없었던 아이들은 기쁨으로 성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자라날 아이들은 세르비아의 소망입니다.

▲ 성경을 갖게 된 티자나 퍼틱(Tijana Purtic)과 안드레아 시믹(Andrea Simic)

"저는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공부를 통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항상 성경을 갖고 싶었습니다."

- 티자나 퍼틱(Tijana Purt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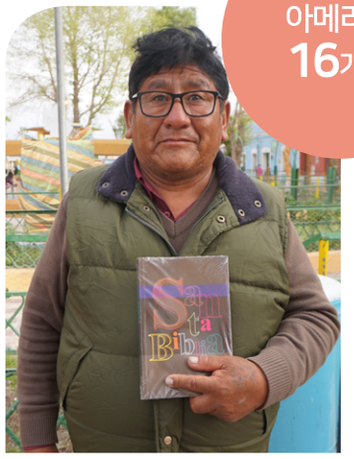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신 성서공회에 감사드립니다."

- 안드레아 시믹(Andrea Simic)

세르비아성서공회의 성경공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경은 세르비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72개 나라에 성경을 보냅니다!

• **굵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나라 (2023.03.14 기준)



아메리카 16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볼리비아,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온두라스,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아프리카 31개국

가나, 가봉, 기니, **나미비아**,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수단, 세네갈, 세이셸, 앙골라, **에리트레아**,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아시아 · 태평양 9개국

남태평양, 대만, 라오스, 몽골, **미얀마**, **인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유럽 · 중동 16개국

리투아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조지아,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지진으로 폐허가 된 이스케데룬 지역 교회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동남부 가지안테프 인근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주택과 병원, 교회를 포함한 많은 건물들이 순식간에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지속되는 여진의 피해도 상당해서 사상자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지역에 접근할 도로의 복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진이라는 엄청난 재해 앞에서 튀르키예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희생당한 상황에서 공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했고, 절망이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이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간절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 음식, 체온을 유지할 거처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치유입니다. 튀르키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 터키성서공회

▲ 이재민들이 모여 예배 드리는 모습

튀르키예는 기독교인이 매우 적은 나라입니다. 믿음을 지키던 기독교인들은 이번 지진으로 소수의 교회마저 무너지자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곳의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지진의 영향을 받은 아다나(Adana) 지역 교회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교회는 터키성서공회가 지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첫 번째 지진 후 곧바로 교회 건물로 모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이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재민 중 한 사람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는지 보세요! 이들은 우리를 먹이고 있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든 이들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해요!'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이웃 사랑이 이재민들의 편견을 깨고 있습니다."

- 터키성서공회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튀르키예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세우는 것보다도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원문의 뉘앙스를 잘 드러냅니다

안용성 (그루터기교회 담임목사)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은 짧은 문장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시대적 의의를 가지면서 동시에 원문을 더 정확히 옮길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짧은 번역문이 원문의 어순을 더 가깝게 옮기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례가 요한복음 11:1-2입니다.

1 어떤 사람이 앓고 있었다. 그는 베다니의 나사로였다.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이었다. 2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발라 드리고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렸던 여자였다. 앓고 있는 사람은 그의 오빠 나사로였다.

본문에는 그동안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은 나사로라는 새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함께 언급되고, 마리아는 베다니에서 주님께 향유를 발라드린 그 여자라는 설명이 더해집니다. 나사로를 두 여인의 형제로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이 이미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향유 사건은 뒤에 이어지는 12장에 나오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요한복음에서 아직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가지고 나사로가 누구인지 설명하다니, 조금 이상하지 않은가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늦게 기록되었으므로 요한의 독자들은 이미 공관복음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베다니에서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태복음(26:6-13)과 마가복음(14:3-9)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가복음(10:38-42)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고, 나사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관복음만 읽은 사람들은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과 마르다-마리아 자매를 별개로 알고 있을 것이며, 그들의 형제인 나사로에 관해서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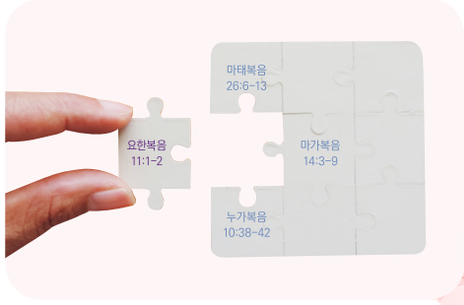
여러분이 공관복음만 알고 요한복음은 처음 읽는 사람이라 가정하고 11:1-2를 다시 읽어봅시다. 본문은 이러한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앓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이고 그의 집은 베다니입니다. 그런데 베다니가 어디냐 하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 알고 계시지요? 그 일이 일어난 곳이 베다니잖아요. 베다니에 사는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마리아의 형제가 되겠지요."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본문을 어순에 주의하여 읽어보면 앞에서 말한 정보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제시하며 퍼즐을 맞추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리스어와 우리말 어순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개역개정』 요한복음 11:1-2)

1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2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새번역』 요한복음 11:1-2)

요한복음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바로 이어지는 12장에 배치하여 두 사건을 인과관계로 연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죽은 형제를 살려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삼백 데나리온도 단순히 낭비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과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다

▲ 르완다 제노사이드 희생자 기념관

▲ 성경을 받은 르완다 남성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르완다는 아프리카의 푸른 보석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겉모습과는 달리 종족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르완다 대학살'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는 국가입니다.

1919년, 벨기에가 르완다를 식민지로 삼아 르완다를 통치할 때, 인구의 소수인 투치족을 우대하고 다수인 후투족을 홀대하는 종족 차별 정책을 펼치며 두 종족 간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1994년, 후투족이 투치족을 공격하며 르완다에서 약 100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되었고, 40만 명이 넘는 고아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직도 르완다 사람들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르완다성서공회는 르완다 사람들이 대학살 사건으로 인해 상처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기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돕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눈앞에서 자신들의 가족, 친척, 이웃이 살해되는 모습을 본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족들의 죽음이 떠오를 때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것 조차 어렵습니다. 깊은 상처와 분노 가운데 놓여있는 르완다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르완다성서공회는 성경 기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가해자들을 향한 분노와 복수심을 갖고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며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 "대학살로 인해 트라우마가 생겼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 - 성경 기반 치유 프로그램 참여 여성

> "저는 몇 년 동안 상처를 안고 있었는데, 성경 기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친척들이 자신들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기반 치유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합니다."
>
> - 성경 기반 치유 프로그램 참여 여성

아픈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르완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처 속에 살아가는 르완다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안에 살아가는 르완다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성경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합니다. 르완다 사람들이 더 이상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삶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어둠 가운데 말씀의 빛을!

▲ 농사를 주업으로 삼는 베냉 사람들

베냉은 1904년부터 1960년까지 56년간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독립 이래 여러 번에 걸쳐 쿠데타가 일어났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냉의 영토는 좁고 길어서 대부분의 부족들이 이웃 나라에 걸쳐 거주합니다. 그렇기에 베냉 안에는 다양한 소수민족 언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60%는 남부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합니다. 하지만 전체 국토면적 중에서 경작 가능지는 23.53%, 농경지는 2.37%로 삼림 및 기타 부지가 74.1%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은 1,370 달러 정도로 매우 가난한 생활이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어린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어른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냉의 문맹률은 57.6%에 이릅니다. 이들은 대부분 가업을 이어 농사를 짓거나 수공업으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농사일을 하거나 수공업 작업을 하면서도 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옥한 농경지가 부족하고 가뭄이나 홍수도 종종 일어나는 환경에서 새로운 경작 법을 배우고, 대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수공예 작업을 할 때에도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글을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글을 모르면 직업 활동에 있어서도 더 발전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글을 모르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에도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멀리 떨어진 학교에라도 다닐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글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을 배우지 못한 부모들은 글을 모른다는 사실로 인해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경을 받은 문자교실 참여자들

베냉 문자교실

베냉성서공회는 여타 5개의 NGO 단체들과 더불어 베냉 정부로부터 문맹퇴치 사업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베냉성서공회가 운영하는 문자교실은 교회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며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골 지역 농부와 수공업자들입니다. 이들은 문자교실에 참여하며 생계 활동에도 도움을 받고, 문자교실이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소수민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더욱 글을 배우기 어려웠는데 문자교실을 통해서 모국어를 글로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알라다 지역 군(Gun)어 문자교실

베냉에서도 에이즈가 창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라다(Allada)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군(Gun)어를 사용합니다. 군어 사용자는 베냉에만 69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중 21만 명은 글을 알지 못합니다. 군어 사용자들은 상당수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인 비율이 66.6% 정도 입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문자교실은 항상 교회를 가득 메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데려와 수업을 듣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 아기를 안고 수업을 듣는 여성

"저희 아버지는 미신을 숭배했고 저도 하나님은 모른 채 자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 전통사회의 딸들이 그렇듯 저는 학교에도 가지 못하여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알게 된 후, 교회 문자교실에서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전에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분노로 가득했던 삶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 캐서린(Catherine)

"저는 함께 교회에 다니는 다른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글을 몰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글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저도 함께 성경을 펼쳐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심하게 때리곤 했는데 성경을 읽으며 그것이 잘못된 훈육임을 알게 되었고 폭력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엄마가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 에밀리엔(Emilienne)

▲ 문자교실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한 캐서린(Catherine)

▲ 문자교실을 통해 가정에서의 변화를 경험한 에밀리엔(Emilienne)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통해 보내지는 성경은 어둠 가운데 있던 베냉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귀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베냉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해 글을 익히고, 나아가 성경 말씀을 읽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 대한성서공회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군(Gun)어 성경 72,600부를 제작하여 베냉에 보급하였습니다.

▲ 〈우크라이나 성경과 요한복음〉을 들고 있는 대구평강교회 기증 예식 참석자들

최고의 공감, 십자가의 정신으로 성경을 보냅니다.

대구평강교회 –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어 성경〉 기증

2022년 11월 9일, 대구평강교회(이요셉 목사)에서 우크라이나 성경 지원을 위한 후원금(약 2천 1백여만 원)을 전달하며 성경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대구평강교회 이요셉 목사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어려운 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 마음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국민들을 공감하고 싶어서 당회원들과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마음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라고 하며 기대를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후원으로 우크라이나에 4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어 요한복음〉 35만 3천 6백부와 〈우크라이나어 성경〉 3만 9천 2백부가 발송되고, 현재는 한국교회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에 5차로 발송할 성경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전해진 성경을 통해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 기증하는 〈마케도니아어 개정 신약〉 앞 서울광염교회 성도들

▲ 미얀마 지페어 첫 번역 성경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서울광염교회 – 에리트레아-티그리냐어 성경 4,370부, 남태평양(피지)-피지어 성경 2,700부, 북마케도니아-마케도니아어 개정 신약 2,900부, 파키스탄-우르두어 성경 8,350부, 베냉-불어 성경 8,310부 기증

2022년 12월 28일, 서울광염교회(조현삼 목사)의 후원으로 해외 5개국에 성경 26,630부를 보내는 기증 예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증 예식에서 서울광염교회 성경 반포 사역 담당인 최규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반포된 그 나라 곳곳에서 성경을 받아 든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계속 전파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남태평양성서공회 레두아 투라가니발루 총무를 비롯하여 후원 받는 성서공회들은 영상 인사를 통해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과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도록 후원해 준 서울광염교회에 감사와 기쁨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성경을 후원하는 에리트레아, 남태평양, 북마케도니아, 파키스탄, 베냉은 빈곤과 종교적 차별, 언어의 다양성 등 처해 있는 어려움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외 계층 사람들에게 전할 성경이 필요한 나라들입니다.

5개 나라에 전달되는 성경은 각 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제작되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서울광염교회의 후원으로 전달된 성경을 통해 빈곤 가운데 성경을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새 소망을 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페 부족이 첫 성경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 – 미얀마 〈지페어 성경〉 기증

지난 2022년,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에서는 성서주일 헌금 4천만 원을 미얀마 지페어 첫 번역 성경 지원을 위해 본 공회(이사장 양병희 목사)에 전달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주안중앙교회 송구영신예배에서 박응순 목사는 "과거 우리나라도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은 것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역 성경을 통해 미얀마 지페 부족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를 믿게 되길 바랍니다"고 하며 기대를 밝혔습니다.

지페어는 미얀마 친주 탄드란 지역을 중심으로 17,000명의 지페 부족과 인도 미조람 지역의 3,000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주 탄드란 지역은 불교 민족주의로 인해 미얀마 군부의 탄압이 특히 심한 지역입니다. 이곳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삶의 버팀목이지만 이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페어 구약은 2023년 말 성경 번역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페 부족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한 권의 성경을 받아보기 위해 20년 가까이 기다려 왔습니다. 지페어 성경이 완역되면 성경을 제작하여 내년에는 현지에서 지페어 성경 봉헌식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제138회 정기이사회 개최

▲ 제138회 대한성서공회 정기이사회 전경

본 공회(이사장 양병희 목사) 제138회 정기이사회가 2022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양태우 목사(빛교회)가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권의현 사장의 사장 보고와 호재민 총무의 모금 사업 보고, 이두희 소장의 성경번역연구소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교단대표로 박태식 사제(대한성공회), 김상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김은섭 목사(기독교한국루터회),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양병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가 선임되었습니다. 찬성회원 대표로는 김순권 목사, 김동권 목사, 문희수 목사, 이선균 목사, 김광년 장로가 선임되었습니다. 이어 송영훈 감사가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성회원 대표로 정명철 목사, 감사에 곽철영 장로가 선임되었습니다.

매월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사랑하는 가족, 지인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가족, 지인분들에게 성경을 보내는 기쁨을
선물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기

홈페이지 인터넷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2 전화로 가입하기

후원자 전용 전화 080-374-3061(수신자 부담)

03 직접 송금하기

후원계좌

송금 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재)대한성서공회)

국민은행 070-01-0340-570	신한은행 140-009-909678
우리은행 1005-702-311166	수협은행 033-01-085327
농협은행 355-0025-0990-53	우 체 국 011916-01-000076
KEB 하나은행 224-910049-47104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 디모데후서 3:16~17

Ch 카톡에서 대한성서공회 채널 추가하세요 +

자세히보기

튀르키예에 성경을 후원해 주세요!

대지진으로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가족을 잃은 튀르키예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몇 안 되는 **교회들도 무너졌습니다.**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내주세요!

터키어 성경 후원

후원계좌 : **농협은행 355-0025-0990-53**
예 금 주 : **(재)대한성서공회**
후원문의 : **080-374-3061**

(재)대한성서공회